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통권 제48호
2015 June Vol.48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학회지 발간 소식	3
공지사항	3
회비납부	4
회원동정	5
신간소개	5

발행일 2015. 6. 30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강은

권 두 언

‘학회 차원에서’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하자

‘아르자마스’라는 러시아 사이트(www.arzamas.academy)를 봄에 알게 되었다. 멋진 곳이었다. 이른바 ‘자신만의 (인문학 전공) 공개 대학’이란 모토 하에, 러시아 최고의 대학 전임교원 및 리제이 교사들의 짧은 강연 및 논문과 글을 우리식의 대학 교양이나 전공과목에 충분히 부합할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묶어 연재하는 것이다. 편집진이 비영리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것처럼 무료다. 독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강의도 개설하겠다고 한다.



최 정 현 (대구대)

<20세기 러시아 문학>이 한창 미는 코스인데, 매우 알차다. 현재 21편의 글과 6편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독특한 주제로, <코무날카의 인류학>,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건축>, <러시아 애국주의의 발생학>, <예카테리나 여제의 그리스 프로젝트> 등이 있다.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가 되며, 신청하면 새로 게재되는 글의 메일링 서비스까지 해준다.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러시아의 학문적, 지적 책무감의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알렉산드르 졸콥스키가 의외로 매우 정정함을 호다 세비치의 시에 대한 그의 강의에서 글쓰이는 처음 알았다.

지난 7월의 첫 주말 오후, 서울역에선 경향 각지에서 모인 학회 임원진들이 우리 학회에서 올 가을 발간 예정인 <나를 올린 한 장면>이라는 단행본과 벌써 내후년으로 다가온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공동저술 출간에 대한 편집 회의를 가졌다. 영광스럽게도 글쓴이 역시 그 편집 회의에 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그리고 다른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한 그날의 회의는 뒤풀이까지 이어지며 많은 아이디어들이 오간 무척 생산적인 자리였다. 아마 그렇게 모인 자리가 매우 오래간만이라 격식을 좀 더 차린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수를 거듭할수록 진정한 고민과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많은 제언들이 나올 것 같았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화두 아닌 화두가 되어 버린 지금, <학회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다름이 아닌, <학회 차원의> 총서 발행을 위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함께 이렇게 결행에 옮기는 것이 차라리 약간은 낯설게마저 여겨졌다.

우연히 SNS에서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선 좀처럼 관심 갖기 힘든 지역을 연구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시다. 전문성이나 세계관이나 인품이나 모두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깊이 신뢰한다. 얼마 전 그분이

자신의 SNS 계정에 너무나 희소한 지역을 국내에서 혼자서 연구하느라 ‘문득 외롭고 말할 사람이 없다보니, 무디어지고 ... 녹슬고 있다’고 토로하셨다. 그러시며 인용하는 구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잠언의 말을 가져오셨다.

글쓰지만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정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세계적인 학술잡지에 한국인 저자의 논문이 종종 실릴 뿐만 아니라 심혈을 기울인 값진 번역과 함께 무게 있는 저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해 이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뚜렷한 학문적 성과를 계속해 쌓아가는 것만큼,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작업도 역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고독하게 나 혼자 하는 공부와 연구가 아니라 이 쉽지 않는 전공을 함께 연구하는 다른 동료와의 공동작업, 강의실에서 초롱한 눈빛으로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까 하는 우리 후배인 학부생들을 위한 길잡이 작업, 그리고 오늘 이만큼의 러시아 어문학에 대한 역

량을 쌓는데 헌신적인 밑거름이 되어주신 우리를 앞서가신 다른 선생(先生)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연구와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일을 학회가 하자는 것으로 지난 7월 초의 모임을 글쓰이는 이해한다. <학회 차원에서>라는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남이 아닌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연구와 작업을 하는 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만큼(!) 역시 필요함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감히 든다. 1815년, 조국전쟁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꺾은 의기양양함으로 러시아적 전통(이라기 보단 전통을 위장한 맹목적 보수주의)에 대한 거부를 외치며 당대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모여 결성된 <아르자마스> 200주년을 기념할 뿐더러, 2015년 “문학의 해”마저 준중해 공동체에서의 지식의 나눔을 위해 기획된 이 비영리 대중강좌 연작시리즈를 보며 학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조그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2015년 4월 11일에 제73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Galin Tihanov(Queen Mary, Univ. of London) 교수가 [Russian Formalism and Its Legacy]를 주제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박현아 회원(고려대)이 [코퍼스 기반 언어 연구 소개]을, 정영주 회원(경북대)이 [러시아국가말뭉치 사이트 이용법]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사회를 맡아 주셨습니다.



▶ 2015년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제7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는 메르스(MERS)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학회지 발간

▶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8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48집에는 문학, 언어학 분야의 논문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김현정 회원(부산대)의 [안톤 체호프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비교 연구: “옥망”을 모티브로]를 비롯한 논문 6편이, 어학 분야에는 김용화 회원(충북대)의 [고대노브고로드 방언에 나타난 동사의 상 쌍 형성에 관한 고찰: писать-написать, переписать-переписывать 유형을 중심으로] 외 5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5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9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49집에는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윤영순 회원(경북대)의 [프롤레타리아 작가가 그린 푸슈킨의 초상: 플라토노프의 평론과 희곡을 중심으로]를 비롯한 논문 4편이, 어학 분야에는 길윤미 회원(경북대)의 [러시아 ‘운명’ 어휘를 통해서 본 러시아인

들의 운명관] 외 4편이, 문화 분야에는 기계형 회원(한양대)의 [러시아제국의 정체성 구축하기: 시베리아의 도시, 건축, 경관] 외 3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0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총무간사 정영주 karusist@naver.com, 010-3136-1650).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1집 투고 안내

2015년 11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1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 동 노어노문학과 김정일 교수 연구실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93-510378 김정일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15년 6월 30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총무간사 정영주(karusist@naver.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4)

김정일 편집위원장 1,000,000원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변현태 부회장 1,000,000원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김정일, 백용식, 변현태, 전명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5년 6월 30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0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5년 6월 30일 현재)

민경현, 백경희, 서선정, 윤새라, 윤영순, 이수현(이상 10만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원), 안지영(20만원), 이득재(38만원) (이상 10인)

▲ 연회비 납부(2015년 6월 30일 현재)

기계형, 길윤미, 김현정, 박미정, 백경희, 서광진, 엄순천, 이경석, 정하경, 조규연, 홍선희 (이상 11인)

▶ 2015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5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10-406-930904 이강은입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회원동정

▶ 문석우 회원(조선대)이 2015년 2월 24일 - 2015년 8월 20일 까지 6개월간 연구년을 영국 런던대학 UCL(University College of London) 내에 위치한 SSEES(School of Slavonic & East European Studies: 슬라브 및 동유럽연구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 교원 임용, 학위 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kjlee@anyang.ac.kr), 총무간사(karusist@naver.com)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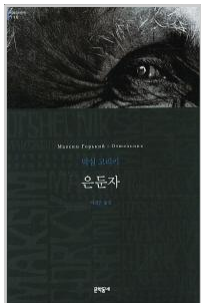
신간소개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을 올립니다.)



1. 『도박사』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정아 옮김, 지식출판드는지식, 2015년 2월 27일 출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소설 『도박사』. 거대한 철학적 사상이나 기독교적 색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거대 철학의 조각들은 인물의 대

화를 통해 발견되지만, 그것들이 결코 작품을 관통하는 주된 주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 도스토옙스키 하면 떠오르는 짙은 종교적인 색채도 거의 느낄 수 없다. 전 인류를 염려하는 신적인 고통 대신, 결핍된 인간의 생생한 고통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신의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나는 작품이다.



2. 『은둔자』 (막심 고리키 지음, 이강은 옮김, 문학동네, 2015년 1월 20일 출간)

막심 고리키 대표 걸작선 『은둔자』. 민중 속에서 걸어온 '혁명의 바다 제비' 러시아 저항문학의 상징, 막심

고리키 대표 걸작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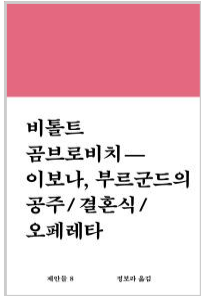


3. 『예술 수업: 천재들의 빛나는 사유와 감각을 만나는 인문학자의 강의실』 (오종우 지음, 어크로스, 2015년 1월 21일 출간)

영화 한 편을 보고 극장을 나섰는데 온 세상이 달라진 것만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또는 미술관에서 감상한 그림 한 점이 자꾸 마음에 남아있던 적은, 한 곡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색깔이 변한 듯한 느낌은 어떠한가. 도스토옙스키와 체호프의 소설, 피카소와 샤갈의 그림, 타르콥스키의 영화, 베토벤의 교향곡과 피아졸라의 탱고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에서 태어난 작품들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황홀한 모험으로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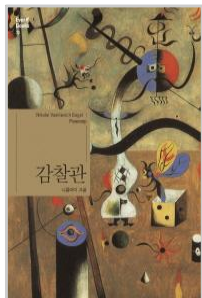
『예술 수업』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유했던 천재들의 빛나는 통찰과 남다른 감각을 온전히 읽어내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책이다. 성균관대의 최고강의상인 티칭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는 인문 교양과목 '예술의 말과 생각'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100여 컷의 미술작품과 도해, 다양한 음악

과 영상,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전문 등을 수록하여 피카소처럼, 또 예술가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법을 직접 느끼게 한다.



4. 『이보나, 부르크군의 공주. 결혼식. 오페레타』 (비톨트 고프로비치 지음, 정보라 율김, 위크롬프레스, 2015년 1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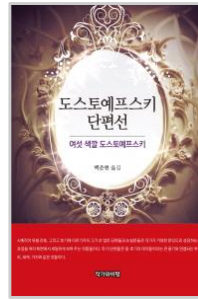
그간 국내 문학 출판의 흐름을 비껴서 있던 작품들을 전면에 내세워 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고 그 잠재성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된 문학 총서 「제안들」의 여덟 번째 작품은 폴란드 작가 비톨트 고프로비치의 희곡집 『이보나, 부르크군의 공주 / 결혼식 / 오페레타』이다. 대표작 《이보나, 부르크군의 공주》와 《결혼식》, 《오페레타》에 이어 파편으로 전해지는 ‘역사 이야기’까지 고프로비치의 모든 희곡이 실려 있다. 폴란드 문학 전공자 정보라가 폴란드어 판본을 한국어로 옮긴 것으로, 고프로비치 연구자 예쥬 야젠브스키의 서문과 콘스탄티 엘렌스키의 해설 또한 동일하게 수록했다.



5. 『감찰관』 (니콜라이 고골 지음, 최진희 옮김, 삼성출판사, 2015년 2월 10일 출간)

『감찰관』에 등장하는 시장을 비롯한 한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층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도덕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타락성은 곧 부패한 사회를 의미한다. 니콜라이 고골은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타락한 관료들의 도덕성을 폭로함으로써 당시 러시아의 부패한 사회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이와 동시에 가짜 감찰관인 홀레스타코프에게 속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위세가 허장성세로 가득하다는 것을 폭로한다.

6. 『도스토예프스키 단편선: 여섯 색깔 도스토예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백준현 옮김, 작가와비평, 2015년 2월 27



일 출간)

『도스토예프스키 단편선: 여섯 색깔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들로 잘 알려진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를, 기존에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단편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되짚어 감상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 책이다. 역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편들 다섯과 연설문 하나를 통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내뿜는 여섯 색깔의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다.



7. 『현대 러시아의 이해』 (Edwin Bacon 지음, 김진영, 김보라, 민정희, 박준성, 정보라 율김, 명인문화사, 2015년 2월 27일 출간)

『현대 러시아의 이해』는 러시아 정치, 사회, 지리,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포괄적인 소개를 하면서 세계 속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는 책이다.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가 가져온 영향, 정부와 시민 사회 사이의 관계 변화와 같은 최신 동향도 포함되어 있다.



8.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 (고은, 석영중 외 지음, 21세기북스, 2015년 2월 27일 출간)

『어떻게 살 것인가』는 플라톤이 아카데미에서 주관한 2013년 가을 학기 ‘어떻게 살 것인가’ 강연을 묶은 책이다. 고은, 김상근, 이강호, 차드 멍 탄, 최인철, 황현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철학자, 역사가, 종교인, 문학가, 그리고 기업 CEO가 모여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경로로 되짚어 감상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 책이다. 역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편들 다섯과 연설문 하나를 통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내뿜는 여섯 색깔의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다.

철학적이면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시도했다. 개인과 사회 모두 기본과 원칙을 신뢰하고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며 ‘안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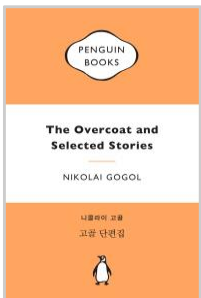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삶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안내하는 1부 ‘너를 살피고 나를 다스리는 지혜’, 상처 입은 사회에서 견디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담은 2부 ‘삶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유성룡의 《징비록》과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내놓기도 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원리와 윤리 혹은 지혜와 상식 등을 제안하며 세상과 맞서는 힘을 제시했다.



9. 『이콘과 도끼 1, 2, 3: 해석 위주의 러시아 문화사』 (제임스 빌링턴 지음, 류한수 옮김, 한국문화사, 2015년 2월 28일 출간)

러시아 문화사라는 주제를 ‘망라’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합의에 새로운 정보와 해석을 내놓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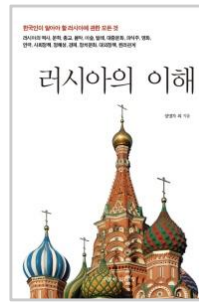
책 [이콘과 도끼]. 『이콘과 도끼』가 다른 러시아 문화 연구서와 구별되는 강점은, 키예프 루스 시대부터 소련 흐루쇼프 집권기까지 거의 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러시아 문화를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일괄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상징인 이콘 속에 효과적으로 통합했다는 데 있다.



10. 『고골 단편집』 (니콜라이 고골 지음, 이기주 옮김, 펭귄클래식코리아, 2015년 3월 5일 출간)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 니콜라이 고골의 [고골 단편집]. 책에는 코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밝히고, 주인공의 관등과 남성성에 대한 과시욕

을 한껏 비웃는 ‘코’, 외투에 인생을 건 ‘작은 인간’의 이야기 ‘외투’, 상식과 정상에 대한 유쾌한 비틀기 ‘광인일기’, 부패와 허영과 야심의 난장판을 그린 ‘감찰관’이 수록되어 있다.



11. 『러시아의 이해: 한국인이 알아야 할 러시아에 관한 모든 것』 (정명자, 심성보, 김영란, 전병국, 고영랑 지음, 우물이있는집, 2015년 3월 9일 출간)

이 책은 그 동안 필자들이 대학에서 〈러시아문화의 이해〉, 〈러시아문화기행〉 등 입문적 성격의 교과목에서 강의한 내용 중 기본적인 실질적인 주제를 가려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러시아를 어느 한 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러시아를 객관적인 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섯 명의 저자가 각자의 전공에 맞추어서 내용을 나누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엮어 놓았다.



12. 『여단장』 (데니스 폰비진 지음, 조주관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15년 3월 30일 출간)

『여단장』은 5막으로 구성된 풍자극으로 『미성년』과 함께 데니스 폰비진에게 작가로서 명성을 안겨 준 희곡이다. 이 두 희곡에서 작가는 사실

주의 기법을 동원해 당시 귀족 계층의 허세와 비도덕성을 폭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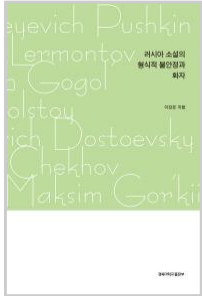


13. 『개미도시』 (박 미하일 지음, 전성희 옮김, 뽕씨터, 2015년 4월 10일 출간)

이 작품집에 수록된 [흰 닭의 춤]과 [개미도시]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쓴 것이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변

화와 자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 국가가 15개 독립국으로 분열되고, 상당 기간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지 못했다. 모든 상황은 역사적인 충돌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작품 속에 이리저리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14. 『러시아 소설의 형식적 불안정과 화자』 (이강은 지음, 경북대학교출판부, 2015년 4월 20일 출간)

이 책은 소설의 불안정성의 핵심에 소설 속에서 말하는 주제, 즉 화자 형식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화자 형식의 진화 과정을 통해 러시아 장

편소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15. 『기린이 아닌 모든 것』 (이장욱 지음, 문학과지성사, 2015년 4월 30일 출간)

이장욱의 소설집 『기린이 아닌 모든 것』.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문예잡지를 통해 발표했던 작품들을 모아 엮었다. 김유정문학상, 문지문학

상, 젊은작가상, 이효석문학상,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 본심에 올랐거나 최고상을 수상한 《절반 이상의 하루요》, 《우리 모두의 정귀보》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삶을 배회하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되짚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에나 있을 법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6. 『러시아의 밤』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 지음, 김희숙 옮김, 을유문화사, 2015년 5월 15일 출간)

『을유세계문학전집』 75번째 작품 『러시아의 밤』. 국내 초역으로 소개되는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의 대표작이다. 철학적이면서도 현학적

인 대화와 서구 문명의 병폐를 꿰뚫는 저자의 시선이 담겨 있

는 이 작품은 독자들을 길고 긴 러시아의 밤을 닮은 철학의 밤으로 안내한다. 소설 속에 또 다른 소설이 소개되는 액자식 구성으로 저자가 이야기 속 인물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한다.

무도회장에서 로스치슬라프는 창밖의 거센 북풍을 바라보며, 불의 발견으로 시작하여 계몽된 문명의 시대에 이른 지금, 인류가 과연 더 행복해졌는지 자문한다.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그는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친구인 파우스트의 집을 찾는다. 한자리에 모이게 된 로스치슬라프와 바체슬라프, 빅토르, 파우스트는 학문과 예술, 철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서 파우스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어느 동료들이 남긴 원고를 꺼내 친구들에게 읽어주는데 원고에 담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17.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김영진, 성원용, 이상준, 김상원, 우준모, 박지원 외 4명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5년 5월 20일 출간)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은 EEU는 소련 제국의 부활인가? 아니면 EU에 대적할 만한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적 구세주인가? 또 EEU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EEU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EEU 경제통합에 대한 현실과 전망을 파헤친 책이다. 한국의 대외 정책 방향과 효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구성되었다.



18. 『러시아문화와 우주철학: 진화와 상생의 열린 소통을 위한 통합의 인문학』 (박영은 지음, 민속원, 2015년 5월 20일 출간)

러시아문화와 우주철학에 관하여 설명한 책이다. 러시아의 우주론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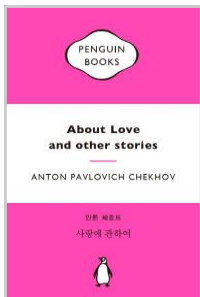
유의 태동과 발전, 자연철학적 우주론을 대변했던 과학자들의 사상, 종교철학적 우주론을 대변했던 신학자들의 사상, 동양의 신비철학적 우주론을 대변했던 영성가들의 사상 등의 내용을 다룬다.



19. 『첫사랑』 (이반 투르게네프 지음, 최진희 옮김, 펍클클래식코리아, 2015년 5월 22일 출간)

『첫사랑』은 성숙한 사랑의 복잡한 본질에 눈뜨는 한 소년의 지적 성장과, 감정을 통제하는 이성의 성숙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저속

한 몰락귀족인 자세진 공작부인과 그녀의 딸, 지나이다가 이웃으로 이사 오는데, 공작부인은 번덕스럽고 제멋대로인 지나이다를 젊은 남자를 끌어들이고 유혹하도록 한다. 열여섯 살 소년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지나이다가 어머니가 강조하는 ‘정숙’이란 개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느끼면서도, 그녀에게 사로잡힌다.



20. 『사랑에 관하여』 (안톤 체호프 지음, 안지영 옮김, 펍클클래식코리아, 2015년 5월 22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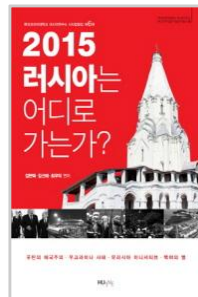
평범한 인생에서 길어낸 비극적 유머 『사랑에 관하여』. 이 책은 삶과 죽음의 경계, 진정한 사랑과 부조리한 현실의 기로, 욕망과 윤리의 갈등, 젊

음과 회한의 대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채와 화법으로 삶과 인생을 투영한 폭넓은 체호프의 작품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대표 선집이다.



21. 『러시아의 심장부: 중앙연방관구』 (최우익, 김선래 외 지음, HUINE, 2015년 5월 26일 출간)

이 책의 1부는 중앙연방관구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 있으며, 2부는 연구자들의 현지답사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연방관구는 수도 모스크바가 있는 러시아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모스크바 연방시를 둘러싼 17개 주 또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러시아의 근간을 이룬다.



22. 『2015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김현택, 김선래, 최우익 지음, HUINE, 2015년 5월 26일 출간)

이 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주간 인터넷 저널 『Russia-Eurasia FOCUS』가 지난 한 해 동안 게재했던 원고들을 분야별 및 주제별로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다. 변화하는 러시아의 모습을 한국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조망하고 이를 널리 소개하는 창구로 기능하는 이 시리즈는 연륜을 더해가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금번에 출간하는 『2015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예년과 달리, 주요 분야별로 2014년의 러시아 상황을 회고하면서 향후 전개될 양상을 탐색하는 여러 편의 기획 에세이를 싣고 있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31) 467-0801 FAX: 031) 467-0909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